

# “황금연휴 잡아라”...광주 백화점, 가을정기세일 돌입

광주신세계, ‘신백멤버스 페스타’ 13일까지 할인행사...맛집 팝업도 롯데백 광주점, ‘슈퍼스타일’ 테마 예비부부 겨냥 ‘웨딩페어’도 진행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가을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사진은 광주신세계 6층 한 아동복 매장에서 모델이 가을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가을 정기 세일에 일제히 돌입한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는 전국 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되는 신백멤버스 페스타뿐만 아니라 광주신세계에서 준비한 신규 팝업 매장까지 더해 황금연휴 동안 고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먼저 오는 13일까지 ‘신백멤버스 페스타’를 열고 풍성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본관 5층에서는 ‘프로젝트 M’이 최대 50% 할인에 나선다. ‘게스진’과 ‘씨스테이아일랜드’는 30%, ‘리스트’와 ‘폴햄’은 30~50% 할인에 참여한다. ‘플렉스’는 20~30%, ‘올리브데올리브’, ‘온앤온’, ‘JJ고스트’는 20% 할인한다. 10% 할인하는 브랜드들은 ‘쥬크’, ‘잇미샤’, ‘에고이스트’, ‘케네스레이디’, ‘레이브’, ‘루에브르’, ‘LEE’, ‘마인드브릿지’, ‘커버넌트’ 등이다.

8층에서는 ‘세사’ (30%), ‘알레르망’ (20~50%), ‘코지네스트’ (20%), ‘로얄코펜하겐’ (10%), ‘발레로이앤보흐’

(10~50%) 등이 신백멤버스 페스타 할인에 동참한다. 본관 7층에서는 ‘본’과 ‘킨록by킨록앤더슨’이 최대 30% 할인에 나선다. ‘닥셔츠’에서는 10~20%, ‘캘럭시라이프스타일’, ‘캘럭시 신사’, ‘알레그리’, ‘바버’, ‘닥스 신사’에서는 10% 할인을 진행한다.

6층 키즈매장에서는 ‘닥스 키즈’와 ‘봉통’이 10%, ‘블루독베이버’, ‘압소바’, ‘헤지스키즈’, ‘에프와’가 20%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에서 신백페

스타에 참여하는 브랜드들은 ‘스케처스’ (10~20%), ‘컨버스’ (20%, 의류에 한함), ‘나이키’ (10% 일부 품목만 해당), ‘반스’ (2개 구매시 20%, 3개 구매시 30% 할인), 그레고리(10%), 풋볼스탠다드(10%), 키플링(20%), 컬럼비아(10% 일부 품목만 해당)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신세계는 성큼 다가온 가을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들을 준비했다. 최근 새롭게 팝업 매장으로 들어온 ‘캐나다 구스’를 비롯해서 ‘무스너클’, ‘노비스’ 등 인기 패딩

들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연휴를 맞아 외부 활동을 떠나는 고객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 팝업 매장들도 본관 지하 1층에 새롭게 들어섰다.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 최근 들어선 ‘문도스트’는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맛집으로 거듭난 곳이다. 토스트를 채운 푸짐한 달걀과 야채가 특징이다.

건강한 샐러드 맛집으로 알려진 ‘르베지앙’ 역시 같은 층에 최근 문을 열었다. 일반적으로 샐러드에 별도의 드레싱을 더해 먹는 것과 달리 채소를 갈아 만든 믹서를 버무려 먹는 르베지앙은 야채와 생연어, 귀리밥 등이 들어간 포케도 만날 수 있다.

남대문의 명물인 잡채호떡도 광주신세계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잡채와 호떡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남대문 잡채호떡’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으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메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슈퍼스타일(Super Style)’을 테마로 가을 황금연휴를 정조준한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해는 늦더위가 9월까지 기승을 부려 예년보다 늦은 10월 초부터 가을옷 구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3일까지 가을 정기 세일을 준비했다. 특히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국

군의 날을 비롯해, 개천절, 한글날 등 주요 공휴일이 몰린 10월 초에 맞춰 연휴 쇼핑 고객을 위한 패션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사은 혜택을 확대했다.

먼저 3일까지 아웃도어 ‘가을상품 대전’ 행사를 9층 행사장에서 진행한다. 가을 산행 및 나들이 상품으로 알뜰하게 아웃도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 네파는 이월 상품 및 기획상품을 30%~60% 할인된 가격에 10% 추가 할인한다. 블랙야크 역시 트레킹화 및 등산화를 우대가로 선보인다.

이날부터 9일까지는 패션, 잡화, 스포츠 단일 브랜드를 당일 30/60/100만원 이상 구매 시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며 동일 조건에 일부 브랜드를 롯데백화점 제휴 현대카드도 구매 시에는 1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가을 최대 혼수 시즌을 맞아 예비부부를 위한 ‘웨딩 페어’ 행사도 진행한다. ‘웨딩 페어’는 롯데백화점의 웨딩 특화 서비스인 ‘웨딩 마일리지’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올해는 행사 기간을 작년보다 6일 더 늘려 이날부터 13일까지 총 13일간 진행한다. 또 롯데백화점몰에서는 롯데백화점이 국내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바사커피’ 답례품 온라인 기획전도 선보이며 웨딩 마일리지 및 엘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 광주은행·토스뱅크, 금융권 첫 공동대출 ‘호응’

‘함께대출’ 출시 1개월 만에 700억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공동대출 신상품인 ‘함께대출’이 출시 1개월 만에 700억원을 돌파하며,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함께대출’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출시한 상품으로 광주은행의 안정적인 자금력과 토스뱅크의 디지털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상생모델로서, 기존의 신용대출 상품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상품은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 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자금을 절반씩 부담해서 실행하는 구조다.

가입대상은 현재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증빙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자로,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억원이다.

상품 출시 1개월 내 700억 원 돌파의 배경에는 가입대상과 대출한도는 물론이고 최저 연 4.87%(9월30일 기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큰 역할을 차지했다. 신규 실행건 중 약 70% 이상이 생활안정자금 및 타 금융기관 고금리 대출 상환 목적으로 실행돼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향후 금융권 신용대출상품의 돌풍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광주은행 박중준 부행장은 “‘함께대출’의 폭발적인 시장 반응은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를 보여주는 결과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더욱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보해양조, 남도음식문화큰잔치서 ‘인기몰이’

지역특산물 활용 제품 선배 참여형 이벤트 관람객 호응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보해는 제품 전시 및 이벤트 부스 운영을 진행했다. 푸드 기업관에서는 앞세주, 매취순, 보해 복분자주, 다시, 마주 등 보해양조의 대표 제품들을 선보였으며, 특히 완도 특산물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다시, 마주’가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보해양조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전시관 외부에 자리한 이벤트 부스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나만의 앞세주 만들기’를 열



었다. 선착순 300명이 참여해 자신만의 앞세주 라벨을 꾸미는 시간을 가졌으며, 보해의 RTD(Ready To Drink) 제품인 ‘매실 하이볼 순’을 시음할 기회도 제공됐다.

보해양조의 이번 축제 참여는 지역 특산물과 전통 주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보해는 남도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주류 제품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보해 복분자주와 매취순 등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도 이러한 제품들이 그 가치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이번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통해 남도의 주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남도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남도의 대표적인 음식 축제로, 남도 명인 푸드쇼와 지역 특산물 시식 이벤트, 글로벌 미식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남도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아우르며, 많은 관람객에게 남도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최권범 기자

## 중진공, 광주지역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광주시와 광주지역대학,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이 함께 개최한 ‘2024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중소기업·스타트업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홍보했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에 방문한 200여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안내, 상담 등을 진행해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도전에 대한 의욕을 높였다.

중진공은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에

참가해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안내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향후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진공 호남연수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국어 및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우리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 전남권역 중소 조선사 설계역량 강화방안 모색

부산해양엔지니어링산업협회 간담회

부산해양엔지니어링산업협회는 수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형조선사 및 엔지니어링 업계 현업의 목소리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설계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중소조선 설계협업 기술지원사업’의 전남 권역 간담회를 지난달 27일 중소조선연구원 서남권 본원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대형조선사에 치우친 불

균형한 산업구조를 극복하고 중장기 중소조선산업의 설계협업 기반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조선 설계협업 기술지원사업’ 소개와 더불어 선박 및 설계 수주 현황 공유, 중소형 조선사와 설계사의 애로사항 청취, 친환경 선박 시장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신규로 추진하는 ‘중소조선 설계협업 기술지원사업’은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를 위한 중소조선 수주지원 △중소조선 맞춤형 애로 기술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 기술지원 △H/W, S/W 통합 기반 설

계협업 플랫폼 구축 △친환경 선박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한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해 중소형조선사의 전주기(영업-기본-상세-생산) 설계현안 기술지원 및 친환경 중소형선박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며, 민간 설계사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조선소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재봉 협회장은 “최근 세계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흑자로 돌아선 대형조선소와 달리 내수 중심의 중소형조선소는 여전히 일감이 모자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중소조선업의 성패가 설계사의 성과에 직결되는 만큼 설계협업 기술지원사업이 착수돼 업계 생태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